번역학연구
2018 봄 제19권1호

『조선왕조실록』 번역
－번역 성과물의 연계성 및 활용 방안 고찰

박 현 주
(부산대)

1. 들어가며

원래 한문으로 기술된 『조선왕조실록』은 1968년부터 26년간 한글로 번역하는 국역 사업이 이루어졌다.[1] 이후 기존 번역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록 번역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영역(英譯)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 번역은 거의 모든 번역 양상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2](자세한 내용은 본고 2장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

1) 남한 기준. 관련 사항은 본고 2장을 참조하라.
2) 남북한 국역 사업의 경우 한문에서 국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언어 내 번역이자 이본(異本)이 존재하는 번역이며, 영역 사업은 한문에서 바로 영문으로 작업하는 언어 간 번역이며, 국역 현대화 사업은 전면적인 재번역 사업이다. 또한 개인 번역자 단독으로 영문 번역을 수행한 『태조실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수의 역자가 번역에 참여한 공동 번역의 양상을 띤다. 주로 정부 기관에서 실록 번역 사업이 수행된다

www.kci.go.kr

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더욱이 그간 국역 내지 영역 사업을 개별적으로 논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국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김범 2016; 신정수 2016; 원창애 외 2013; 이기찬 2014; 정영미 2016). 번역학계에서는 실록과 관련한 논의가 저조한 편으로 그마저도 실록 자체의 번역에 관한 논의보다는 고대 한국에서의 통번역 개념 및 제도 등을 밝히기 위한 전거로 활용되었다(Kim Nam Hui 2012, 2013; 김정우 2009; 유명우 2004; 유정화 2014; 이영훈 2011, 2012).

『조선왕조실록』 번역은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사업이므로 각 단계별 번역은 번역 결과물인 동시에 후속 단계에서는 번역 보조 혹은 참고 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번역 결과물 이외에도 국역 사업 과정에서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사전』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여러 형태의 번역 부산물 또한 발생한다. 그간의 여러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유형(언어내 번역 대 언어간 번역)이나 관련 언어쌍(한문-한국어, 한국어-영어)과는 별도로 국역이나 영역 모두 큰 틀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많은 공통분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또한 상당 부분 겹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실상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자료 자체의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번역 사업에서 축적된 각종 성과물을 일종의 '자료 인프라'라 보고 이를 소개함으로써 그 가시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각 자료 간 연계성을 고찰함으로써 특히 향후 영역 과정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번역 사업에 대해 개괄한 후 3장에서는 이들 사업에서 축적된 번역 결과물 및 부산물 등을 특히 향후 영역 사업에서 번역 보조 자료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원문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국역과 영역 사

는 차원에서 Gouadec(2007: 38)의 정의에 따라 제도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으로도 볼 수 있다.

www.kci.go.kr

업 간의 자료적 연계성을 밝히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조선왕조실록』 번역

앞서 말한 바와 같이『조선왕조실록』 번역은 다양한 번역 유형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크게 '언어 내(intralanguage)' 번역이라 할 수 있는 국역 사업과 '언어 간(interlanguage)'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영역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조선왕조실록』 국역 사업

2.1.1 남한본과 북한본

국역 사업은 한문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업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이루어졌다. 유사한 시기에 번역이 이루어지고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했다는 데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정영미 2016: 300).

실록 국역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의 '소개 > 실록 편찬의 유래와 체제'에 따르면 남한에서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태백산 사고본을 저본으로 1968년부터 1993년까지 장장 26년에 걸쳐 완역하여 413책[3]으로 간행했다. 북한에서는 1975년부터 적상산 사고본을 저본으로 사업에 착수해 1991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총 400책으로 된『리조실록』을 출판했다.

남한에서『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역대 왕조, 즉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임금의 통치 기록을 담은 실록 총 28종을 통틀어 지칭한다. 고종과 순종 대 실록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여 내용 상 왜곡이 많을뿐더러 체제도 맞지 않는다고 하여 포함시키지 않는다(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국역 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북한의 경우는『순종실록』

3)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국역 사이트에 따라 '책(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 여기서 '책'은 고서를 세는 단위로 현재 우리가 쓰는 '권' 개념이다.

www.kci.go.kr

까지 실록 범주에 포함된다.

남북한 국역본은 한자 및 한자어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한본은 국한문 혼용으로 한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대체로 축자역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본은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최대한 쉬운 말로 번역하고 있다(정영미 2016). 또한 『광해군일기』[4]의 경우 남한은 중초본을 토대로 한 데 반해 북한은 최종본인 정본을 저본으로 삼았다.[5]

번역 목적을 보면 남한본은 "한국학 연구자를 위한 자료 개방"에 일차적 목적을 둔 반면(정우봉 1999: 18) 북한본은 아래 『리조실록 14 (세종 1)』의 '일러두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리조실록 14: 3)

가독성 제고를 위해 『리조실록』은 '어려운 말 뜻풀이'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6] 단순히 정의만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어 간 비교 등을 통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번역에 유용하다.

> **대차·소차·편차(大次·小次·便次)**
> 절대군주인 임금이 왕궁을 떠나 있는 경우에도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림시로 꾸려놓은곳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의 차(次)자는 딴 곳에 나가 있거나 정식건물밖에 있는다는 뜻으로서 큰 의식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한 다

4) 『광해군일기』는 다른 실록과 달리 활자로 간행되지 못했다. 두 종류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초벌 원고를 수정한 중간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중초본(中草本: 태백산 사고본)과 최종 완성본인 정초본(正草本: 정족산·적상산 사고본)이다(출처: 실록 국역 홈페이지 '소개 > 왕대별 해제').

5)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 2012년 6월 28일자 기사 '남북한, 조선실록 번역도 치열한 경쟁' (http://www.rfa.org/korean/in_focus/chosunhistory-06282012095227.html).

6) 북한 『리조실록』은 일러두기, 국역본 실록 본문, 어려운 말 뜻풀이, 틀린 글자 바로잡기, 실록 원문(영인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kci.go.kr

> 음 또는 진행한 과정에 휴식하는곳을 말한다. ≪대차≫는 어느정도 오랜 시간을 휴식하는 곳이고 ≪소차≫는 잠깐동안 휴식하는 곳이며 ≪편차≫는 이 두 경우와는 달리 간편하게 만들어놓고 휴식하는곳이다…… (리조실록 14: 374)

번역 수행 주체와 관련해 북한은 정부(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주도로 번역 집단을 구성해 공동 번역이 이루어진 반면 남한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두 곳의 민간 기관에서 한학자나 사학자 등 전문가에게 위촉하는 형태로 번역이 진행됐다.[7)]

2.1.2 국역 현대화 사업 -『정조실록』

기존 국역본의 오류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고전번역원은 2011년부터 '조선왕조실록 번역 현대화사업'에 착수한다. 원래는 기존 국역본을 6년 기한 동안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원문 입력 오류, 실록 원문 자체의 오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2026년까지 재번역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김영두 2016). 역사문헌 번역 경험이 조선 후기 자료에 집중되어 있으며『승정원일기』,『일성록』 등 참고할만한 관찬(官撰) 사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이유에서『정조실록』이 첫 번째 재번역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현대화 사업의 기본 원칙은 신뢰성 확보, 학술성 제고, 대중성 지향이다(이기찬 2014). 먼저 번역 자체 및 원문 오류 수정을 통한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 국역본 및 북한본과의 대교(對校)는 물론『승정원일기』,『일성록』 등 연대기 자료와의 타교(他校)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감 작업 결과를 신국역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나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아직까지는 웹 서비스에까지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본고 3장 참조). 학술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원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주석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번역에 참여시킴으로써 특수 분야의 학술성을 제고한다는 구체적 방향을 설정했다.『정조실록』 재번역본은 기존 국역본에 비해 주석이 일곱 배나 증가했다(이기찬 2014: 232).

---

7) 시사저널 1993년 10월 21일자 기사 '북한판 ≪이조실록≫ 출판 교류 시금석'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702).

www.kci.go.kr

국한문 혼용 시대에 이루어진 번역으로 기존 국역본의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어휘 및 어투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대중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현대화 사업에서 번역과 관련해 특기할만한 점은 번역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전문 용어 사전, 번역 지침서 등의 편찬과, '윤독번역'이라는 공동 번역 방식, 그리고 번역 전담 팀의 구성 및 운영이다.

"재번역의 사활은 어휘의 정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ibid*. 234)라고 할 정도로 기존 번역 오류의 상당수는 전문용어나 제도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실록 전문 사전인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해 2017년 현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http://encysillok.aks.ac.kr). 동 사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사업 속성 상 다수의 인원이 번역에 참여하다 보니 번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번역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장장 260쪽에 달하는 번역 지침서를 2014년 발간하는데 번역, 역주, 표점(문장 부호 표기), 교감, 평가와 관련된 지침과 함께 번역 표준안도 수록하고 있다. 영역 지침이 대체적으로 길어야 몇 쪽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번역 지침서를 편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역주 관련 내용은 영역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특히 어떤 내용에 학술주석을 달아야 하는지 관련 원칙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번역자 모집요강'의 영역 지침을 보면 각주는 최대 3행 이내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이 매우 애매할뿐더러 상세한 관련 지침이 없으면 역자에 따라 일관성 없이 작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번역 지침서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윤독번역은 전문성을 갖춘 번역가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번역 경험이 풍부한 좌장과 조원 2~4인이 공동 번역조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함께 윤독하며 번역 상의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형태다. 윤독번역은 고전번역원 전체적으로 새로이 도입된 번역 형태로 실록 현대화 사업의 3차년도인 2013년부터 적용됐다(이기찬 2014).

번역 전담팀은 사업 초기부터 구성되었지만 1차년도(2011년)에는 박사급 연

www.kci.go.kr

구자 5명이 주로 사업의 기본 원칙과 수정보완 지침 및 용어통일안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다. 2차년도에는 번역 실무진(계약직 전문위원 6인)을 포함해 10인(사업 총괄 연구원 1인, 세부 지침 및 번역표준안 작성 연구원 2인, 용어 정리 담당 전문위원 1인)으로 팀을 재편하며 시범 번역을 수행했다. 3차년도에는 실록팀원 외에 7인의 위촉 역자단을 구성하여 시범번역을 진행했다. 국역 현대화 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승정원일기』와『일성록』번역 위원 중 우수 역자를 엄선해 품질 확보를 꾀한 것이다(*ibid*: 210-213).

2.2『조선왕조실록』영역 사업

2.2.1『조선왕조실록』의 영역

『조선왕조실록』 중 실록 전체 내용이 영역된 혹은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 서종(書種)은『태조실록』과『세종실록』이다.[8]

『태조실록』의 영역본(*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 n Dynasty*)[9]은 영문학자인 최병현[10] 전 호남대 교수가 단독 번역하여 2014년 하버드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발간됐다. 태조실록 영역본은 번역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역자 주석이 달렸다. 아마존(https://www.amazon.com/)의 '에디토리얼 리뷰(Editorial Reviews)'를 통해 전 고려대학교 김병국 교수는

8)『태조실록』과『세종실록』의 정식 명칭은 각기『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과『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국역 사업에서는 범례에 따라『태조실록』 등의 약칭(略稱)을 원칙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http://sillok.history.go.kr/intro/rule.do). 본고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약칭으로 칭하기로 한다.

9)『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제목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목록(Memory of the World Register)에는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로 올라가 있으며(https://en.unesco.org/programme/mow),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표현이 혼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본고의 영문 요약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역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영문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라는 의미역을 부가하였다.

10)『태조실록』뿐만 아니라『목민심서』 등 "주요 한국학 원전을 영역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교수는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연합뉴스, 2016/09/20, '태조실록' 영역한 최병현 소장 등 6명 대한민국학술원상).

www.kci.go.kr

현대 독자가 읽기 쉽게 『태조실록』이 영문으로 잘 번역되었으며 이후 수행될 모든 실록 번역에 모범이 될 만하다고 적고 있다.[11] 한국 문화 예술을 10여개 언어로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계간지 『코리아나(*Koreana*)』는 최교수의 번역이 훌륭한 이유 중 하나로 영어 고유의 명료함을 잘 살려, 한문으로 쓰인 원저나 국역본을 대할 때와 같은 당혹감 없이,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에서 농경학,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최교수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12]

국사편찬위원회는 2012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실록』(*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영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1단계로 2022년까지 『세종실록』 본문 기사를 모두 번역한 후(부록에 해당하는 오례, 지리지, 칠정산은 제외) 2023년부터는 나머지 왕대 실록에서 주요 기사만 선별해 번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 영역 과정에서 주요 한국학 용어의 영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도 동 사업의 목표 중 하나다(김범 2016, 2017).

『태조실록』의 영역본은 민간 출판사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사안이 보다 복잡해진다. 본고는 기관에서 편찬 및 공개해 그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료를 영역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위')의 영역 사업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2.2 국편위의 실록 영역 사업 -『세종실록』

국편위는 「사료의 수입·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 11690호)에 근거해 2012년부터 2033년을 사업 기간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영문판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13] 2012년 및 2013년은 번역 과정에서

11) https://www.amazon.com/Annals-King-Taejo-Founder-Dynasty/dp/0674281306

12) 『코리아나(*Koreana*)』 2016년 겨울 호 인터뷰 기사 "Choi Byong-hyon: Bringing to Life Heroes from Korean Classics"

https://www.koreana.or.kr/user/0004/nd19931.do?View&boardNo=00000604&zineInfoNo=0004&pubYear=2016&pubMonth=WINTER&pubLang=English

www.kci.go.kr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 번역 기간이었고 본격적인 번역에는 2014년부터 착수했다. 영역 기초 사업에 해당하는 시역(試譯)은 '총서(總書)[14]'에서 세종 원년 8월까지의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문의 경우 해석이 까다로운 백화문(白話文), 즉 중국의 구어체 문장을 포함하고 있어 번역 대상에서 제외시켰다.[15]

2016년에는『조선왕조실록』중 조선시대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세종대 기록인『세종실록』을 영역한『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의 첫 번째 권을 발간했다. 이는 세종실록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태종의 양위에 따른 세종 즉위년 8월부터 세종 치세 초기에 해당하는 세종 1년 2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16] 이후 영역화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2017년 12월 현재, 세종 5년(1423) 10월까지의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실록 영역 과정은 번역, 교열, 감수, 공개라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김범 2016, 2017). 원문에 충실하게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번역한 후 교열 및 감수 과정에서 어색한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교열과 감수의 경우 교열자 및 감수자(교정자) 모집 요강을 보면 교열자는 TT의 내용 및 언어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교정자는 전공 분야가 동양학이나 한국학에서 '조선시대사'로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 내용적 측면에 보다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7]

영어 수준은 영어권 국가의 학사 이상 수준이면 전공과 무관하게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념 용어의 '합리적' 번역 및 일관된 적용과 더불어 영어, 한문, 한국사에 두루 지식을 갖춘 작업자의 확보가

---

13) 국사편찬위원회「2014년 주요 사업 성과」. 김범(2016, 2017)에 따르면 2단계 종료 시점은 미확정 상태이다.

14) 실록 국문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서'는 "왕의 출생, 성격, 일화(逸話), 즉위에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각 실록 첫머리의 일진(日辰) 표시 없이 작성된 기사"를 일컫는다(http://sillok.history.go.kr/intro/rule.do).

15) 출처: 국사편찬위원회「2013년도 조선왕조실록 영역 기초 사업 과업내용서」.

16) '정부24' 홈페이지 2017년 3월 28일자 '국정 알림' <'조선왕조실록' 영어로 읽는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033412?&pageIndex=214).

17) 2015 교열자 모집 요강, 2015 교정자 모집 요강

www.kci.go.kr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17년 현재까지는 국내외의 한국학 전공자 25인을 위촉해 번역, 교열, 감수를 진행했다(김범 2017). 그간의 작업 결과물(1418년 8월~1419년 2월)을 엮어 책자 형태로 2016년 발간한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1』에는 번역자 5인(Hacksun Cha, Yoonjeong Shim, Leif Olsen, Edward Park, Timothy Atkinson), 교열자 4인(Yoonjeong Shim, Eunhwa Jang, Jiyoun Lee, Paul Hak Kim)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18]

번역 원칙과 관련해서는 충실성, 간결성, 정확성이라는 3대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2015년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교정자 모집요강(안)」을 보면 "원전(한문)에 충실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영역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교정 샘플('선지'와 '전지')을 보면 '충실성' 원칙이 원문과 어휘 차원에서 1대 1 대역으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번역 원칙인 '간결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충실성'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3. 번역 사업 성과물 활용 극대화 및 개선 방안

3.1 국역 사업에서 구축된 자료 인프라 현황 및 영역에의 활용 방안

3.1.1 실록 국문 홈페이지

국편위는 현재 실록 원문을 인터넷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http://sillok.history.go.kr)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더불어 『고종·순종실록』에 대해 한문 원문 텍스트와 국역 텍스트뿐만 아니라 태백산 사고본을 촬영해 디지털화한 실록 원본 이미지까지도 볼 수 있다.

2017년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번역자 모집 요강의 영역 지침을

18) 책자와 영문 실록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안내문으로 보아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국편위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형태로 된 해당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 '총서' 부분만 영문 홈페이지 수록본과 비교해 본 결과 '氏'가 홈페이지에는 'clan'으로 번역되어 있는 데 반해 책자에서는 'descent grou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www.kci.go.kr

보면 “한문본을 작업대본으로 삼되 국역본도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지침은 두 가지 가정을 가능케 한다. 전자화된 한문 텍스트가 실록 원문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번역 결과물인 국역본이 영역(한문→영어) 과정에서 번역 보조 혹은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후자는 국역 과정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정의 정보 등 각종 각주 자료가 생성되고 이를 영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이 성립되므로 본고에서는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번역자가 직접 실록 원문 이미지를 보며 작업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가정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역자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빼고 번역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자화된 한문 텍스트를 M/S 워드 같은 문서편집기에 복사해 와 이를 바탕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문의 특정 글자가 다른 글자로 잘못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의 영역 또한 오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록이 “1차사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2차사료이다 보니 절록하는 과정에서” 원문 자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고 국역 과정에서도 상당한 오역이 발생했다. 국역 현대화사업, 즉 재국역 과정에서는 이러한 각종 오류를 발견할 경우 국역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문 원문 텍스트까지도 그 오류를 시정하고 있다(이기찬 2014: 215~224 참조). 그러나 실상 이기찬이 교감[19] 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고 제시한 사례 중 상당수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되고 있다(<표 1> 참조). 신국역 사업에서 확인된 오류 관련 수정 사항이 온라인 판에도 신속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19) 이기찬(2014: 215-216)에 따르면 신국역사업에서 “역자들은 태백산사고본 내의 비교인 本校,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역사문헌 자료들과의 비교인 他校, 그리고 문맥을 살펴 교감하는 理校의 방식도 일부 활용하여 교감을 진행”한다.

www.kci.go.kr

〈표 1〉 국역 현대화 사업에서 온라인『정조실록』오류 수정 여부(2017/12/26 현재)

오류 시정 사례로 언급된 예	해당 기사	실제 수정 여부
타교를 통해 빠진 주어를 보충한 예	정조 8년 8월 3일 병술 8번째 기사	×
타교를 통해 인명과 물명의 오류를 수정한 예	정조 8년 8월 2일 4번째 기사	×
타교를 통해 오자(誤字)를 수정한 예	정조 8년 10월 13일 4번째 기사	×
물명(物名)의 의미를 짐작으로 번역하여 잘못된 사례	정조 2년 12월 21일 2번째 기사	×
의례(儀禮) 용어를 몰라서 잘못 번역한 사례	정조 즉위년 3월 11일 1번째 기사	×
관청과 관직 제도를 몰라서 문장구조 파악을 잘못한 사례	정조 즉위년 3월 12일 4번째 기사	○

신속한 업데이트와 더불어 사업의 서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역 현대화 사업은『정조실록』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영역 사업은『세종실록』부터 진행되고 있다.『세종실록』또한 원문 자체의 오류와 국역 상의 오류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성과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대상 서종, 즉 번역을 진행할 실록의 순서를 맞추어 나가는 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록 본문 외에도 국문 실록 홈페이지 내용 중 영역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부가열람' 메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관인별 열람', '관직별 열람', '신분별 열람', '선원 계보도', '분류색인', '분류색인 검색', '용어색인'으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 '분류색인 검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인 화면 하단에 전진 배치되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들 중에서도 '용어색인'은 크게 인명(한국, 중국, 일본, 몽골여진, 서양), 지명(일본, 몽골여진, 서양), 서명, 연호로 세분되는데 인명 색인의 경우 유의어 정보도 제공해 특히 유익하다. 일례로 '성종(成宗)'의 유의어로 '혈(娎)', '자을산(者乙山)', '인문헌무흠성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 '영사(永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실록 영문 홈페이지에는 인명 색인에 유의어 정보가 빠져 있는데 국문 홈페이지에서

www.kci.go.kr

수집된 이들 정보를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혈'이 휘(諱), 즉 왕의 본명이고 '자을산'은 군호(君號), 즉 대군시절의 호이며, '인문헌무흠성공효'는 사후에 내려진 시호(諡號), '영사'는 전호(殿號)[20]라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생략된 채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역 과정에서 실록 본문을 토대로 추출한 용어 색인이라 가정할 경우 아래 기사에서 보듯 시호, 묘호, 전호 등의 정보가 이미 본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같이 추출 및 수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ST[21]: 戊戌/議政府、六曹、弘文館、藝文館、春秋館二品以上, 會賓廳, 議 大行王謚及廟號、陵號、殿號, 謚曰: "仁文憲武欽聖恭孝。 廟號曰: 成。陵號曰: 宣。 殿號曰: 永思……

TTK: 정부·육조·홍문관·예문관·춘추관 5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대행왕의 시호 및 묘호(廟號)·능호(陵號)·전호(殿號)를 의논하였다. 시호는 인문 헌무 흠성 공효(仁文憲武欽聖恭孝)라 하고, 묘호는 성(成)이라 하고, 능호는 선(宣)이라 하고, 전호는 영사(永思)라 하였는데……

(출처: 연산군일기 2권, 연산 1년 1월 14일 무술 1번째 기사)

3.1.2 전문용어 사전 -『조선왕조실록사전』

『조선왕조실록사전』(http://encysillok.aks.ac.kr/, 이하 『실록사전』)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특정 텍스트를 위한 전문사전"이다(원창애 외 2013: 87). 에드워드 슐츠(Edward Schultz 2008: 204)는 1차 사료 번역 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로 점철된 용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점에서 『실록사전』의 편찬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직접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분야별, 유형별, 테마별로

20) '전호(殿號)'는 "국장(國葬) 이후 삼년상 동안 왕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魂殿)의 이름"이다(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21) 본고에서 'ST'는 한문 원전, 'TTK'는 국역본, 'TTE'는 영역본을 뜻한다.

www.kci.go.kr

구분되어 있어 그에 따라 검색도 가능하다.

-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풍속, 교육·출판, 왕실
- 유형: 개념용어, 법제·정책, 사건, 물품·도구, 의식·행사, 놀이, 음식, 의복, 인물, 지명, 건축, 능·원·묘, 약, 약재, 문헌, 작품, 집단·기구, 자연(현상), 고사, 관습, 동물·식물, 직역
- 테마: 조선의 왕릉, 조선의 관직, 조선의 흉례, 조선의 도로망, 조선의 사고, 조선의 국혼

그러나 실제 검색 결과 표시 창에는 유형 분류가 아래와 같이 약간 상이하게 나온다.

> 개념용어, 건축, 건축·능·원·묘, 관료/문신, 관습, 능·원·묘, 문신, 문헌, 물품·도구, 법제·정책, 사건, 식재로, 약재, 연호, 유일(遺逸), 의식·행사, 인물, 자연(현상), 정치·행정가/관료/문신, 직역, 집단·기구, 한문

메인 페이지와 실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있는 분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능·원·묘'와 '능·원·묘', '관료/문신', '정치·행정가/관료/문신' 등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분류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아직 서비스 초기이므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존재하지만 전문용어사전으로서 동 사전이 제공하는 정보는 번역가에게 매우 유용하다. 국역 과정에서 실록에 간단한 주석을 달기도 하지만 『실록사전』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보다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원창애 외 2013). 일례로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5일 갑오 4번째 기사를 보면 '권당(捲堂)'이라는 용어에 역주가 아래와 같이 달려 있다.

> [註 423] 권당(捲堂)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들이 불평이 있을 때에, 시위(示威)를 하기 위하여 다같이 관(館)에서 나가버리던 일. 공관(空館).

상기 각주의 내용만 보면 '권당'과 '공관'이 동의어처럼 보인다. 『실록사전』을 찾아보면 '권당'이 독립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표제어의 설명

www.kci.go.kr

부분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공관(空館)'이라는 표제항을 보면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일제히 퇴관한 집단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내용 및 특징'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성균관 학생들의 집단행동에는 경중이 있어서 권당이 경하고, 공관은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식사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권당이 장기화되면 공재 상태에 이르고, 마지막에 성균관을 떠나는 공관을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공관에 돌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재를 공관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는 물론,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조선왕조실록사전』)

상기 설명은 보면 '권당'과 '공관'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경중이 다르다.

중국은 주요 역사 서적을 현대 중국어로 번역 시 해당 서적에 대한 사전도 필히 같이 편찬하며 북한도 실록 번역 시 『이조실록난해어사전』을 편찬했다(원창애 외 2013: 88). 이를 고려할 때 『실록사전』의 편찬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이라도 실록 전문사전이 편찬되어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록사전』이 2017년에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 사전의 존재가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역자가 번역 과정에서 동 사전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실록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실록사전』에 대한 언급이나 링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 『실록사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그 구축 및 편찬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전의 각 표제어별로 해당 표제어가 등장하는 관련 실록 기사로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창애 외(2013: 104)에 따르면 실록 사이트와 양방향 연계를 시도할 예정으로 있다.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가 구현되기 전까지는 실록 사이트의 좌측 상단 메뉴나 화면 우측 하단의 '관련사이트 바로가기'에 『실록사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실록 국문 홈페이지 기준으로 메인 페이지가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으므로(즉, 스크롤

www.kci.go.kr

바를 내려야만 화면 하단이 시야에 들어옴) 가시성 측면에서는 화면 상단에 링크를 추가하는 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메뉴명에 채색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현재 실록 사이트의 상단 메뉴를 보면 흑백으로 표시된 '실록마당', '자료열람' 등의 주요 메뉴 뒤에 주황색 글씨로 '세계기록유산'이라는 메뉴를 두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실록사전' 메뉴 역시 색상을 달리 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3.1.3 번역 지침서 -『조선왕조실록 번역 지침 및 표준 번역(정조대)』

국역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번역 부산물 중 번역 지침서 또한 영역 사업에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장 260쪽에 걸쳐 번역, 역주, 표점, 교감, 평가 관련 지침과 번역 표준안을 수록하고 있다. '1장 번역 지침'에서는 원고 작성 요령은 물론 표기 지침 등을 기술하고, '2장 역주 지침 및 사례'에서는 간주와 각주 작성 관련 원칙 및 방향과 사례를 제시하며, '3장 번역 표준안 및 사례'에서는 내용별(기상, 천문, 행사, 제향 등), 문서형식별(왕명 문서와 상소 등의 상달 문서 등) 번역 표준안을, 4장에서는 표점 및 교감 지침, 5장에서는 번역 및 교점 원고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이나 평가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역주 지침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드물므로 본고에서는 역주 지침을 위주로 고찰하기로 한다.

실록 번역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수정 차원의 번역에서 전면 재번역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실록이 주석 없이는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상세한 학술주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이기찬 2014). 동일한 원문을 다루기 때문에 이는 영역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 번역자 모집요강'의 영역 지침을 보면 각주는 최대 3행 이내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이 매우 애매할 뿐더러 상세한 관련 지침이 없으면 역자에 따라 일관성 없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역문과 영역문의 대상 독자는 그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어떤 내용 혹은 용어에 역주를 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

www.kci.go.kr

도 국역 시에 적용되는 역주 지침을 바탕으로 영역 시 일관된 역주 작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침서의 2장 내용을 살펴보면 역주는 번역문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때 달며 본문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서술하며 해당 전거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역주는 간주와 각주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문 중에 간주 형식으로 삽입해야 할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간주의 지침과 사례
> ▶성명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에 대해 성명이나 호칭만 밝히는 경우에 달 수 있다.
> ▶왕후(王后), 비빈(妃嬪), 왕자(王子), 부원군(府院君), 부부인(府夫人), 봉호 공신(封號功臣)에 대한 성명 등 최소 정보만 밝히는 경우에 달 수 있다.
> ▶관사명이나 관직명 등의 이칭과 별칭에 대해 정식 명칭만 밝히는 경우에 달 수 있다.
> ▶별칭, 이칭, 옛 명칭 등 지명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 달 수 있다.
> ▶물명, 방위, 시각이나 일반 어휘 등에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경우에 달 수 있다.
> ▶역주 범위에 포함되는 어휘는 역주 내용에서 함께 설명한다. (p. 66)

한편 각주는 기사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웹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동일 용어라 해도 다른 기사에 출현할 경우 매 기사별로 달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 기준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적 번역의 경우 특정 용어가 처음 출현할 때 역주를 달고 그 이후로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차적 독서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온라인 실록은 비연속적 독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즉 특정 주제와 관련한 기사만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보는 경우를 가정해 해당 기사 안에서 독자가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용어 관련 정보를 해당 용어가 출현하는 매 기사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영문 실록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접근법으로 보인다.

각주 지침의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인물주
▶ 국어대사전이나 인터넷 상의 인물사전, 백과사전류 등에서 쉽게 검색되는 인물(한국, 중국, 외국인명)은 주석을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불필요] (p. 70)

㉤ 비유의 의미에 대한 설명
▶ 비유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간략하게 주석한다.[필요]
▶ 비유의 의미가 단순할 경우에는 주석을 달지 않고 번역문에 반영하여 풀이한다.[불필요] (pp. 90-91)

비유의 의미 관련 각주의 경우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인물주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 자료에서 쉽게 검색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영역본의 대상 독자인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역 현대화 사업에서 작성된 번역 지침서(『조선왕조실록 번역 지침 및 표준 번역(정조대)』)를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 가능한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판별해 영역 과정의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판 번역 지침을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해 본다. 국역 번역 지침서는 특히 역주 시 유의할 사항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참조할 필요가 있다.

3.2 영역 사업에서 구축된 자료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3.2.1 실록 영문 홈페이지

국편위는 현재까지 영역이 이루어진 『세종실록』 내용[22]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다(http://esillok.history.go.kr). 2014회계연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검토에서 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의 성과물을 조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8월 31일 자로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다.[23] 현재 메뉴는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Indexes’, ‘Glossaries’, ‘About Sillok’, ‘Plaza’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메뉴는 실록 본문에 접근할

22) 2017년 12월 29일 현재 총서(Introduction)에서 세종5년(1423) 10월분까지 서비스되고 있다.
23)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2015년 주요 사업 성과」

www.kci.go.kr

수 있는 것이고, ‘About Sillok’과 ‘Plaza’는 각기 실록에 대한 소개와 공지사항 메뉴로 상호 독립적이며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없다. 그런데 ‘Indexes’와 ‘Glossaries’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하위 메뉴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실록 본문 서비스의 경우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보인다. 번역 보조 자료로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영문 홈페이지 ‘Indexes’, ‘Glossaries’ 메뉴의 현재 구성

<table>
<tr><td rowspan="8">Indexes</td><td rowspan="1">Classified Index</td><td colspan="2">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td></tr>
<tr><td rowspan="7">Term Index</td><td>Personal Names</td><td>Korean Personal Names
Chinese Personal Names
Japanese Personal Names
Jurchen/Manchu Personal Names
Western Personal Names</td></tr>
<tr><td>Place Names</td><td>Korean Place Names
Chinese Place Names
Japanese Place Names
Jurchen/Manchu Place Names</td></tr>
<tr><td colspan="2">Book Titles</td></tr>
<tr><td colspan="2">Era Names</td></tr>
<tr><td colspan="2">Terms</td></tr>
<tr><td colspan="3"></td></tr>
<tr><td>Glossaries</td><td colspan="2">Chinese Personal Names
Japanese Personal Names
Japanese Place Names</td></tr>
</table>

○ 메뉴 개편 및 분류 재정비

‘Indexes’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assified Index’와 ‘Term Index’로 크게 분류된다. ‘Classified Index’는 실록 국문 홈페이지의 ‘부가열람>분류색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로 보다 세분화된다. ‘Term Index’는 ‘Personal Names’, ‘Place Names’, ‘Book Titles’, ‘Era Names’, ‘Terms’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으며, ‘Personal Names’는 다시 한국, 중국, 일본, 여진/몽골, 서양 인명으로, ‘Place Names’는 한국, 중국, 일

www.kci.go.kr

본, 여진/몽골 지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문 홈페이지의 '부가열람>용어색인' 하위 메뉴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거의 유사하다.

한편 'Glossaries' 메뉴를 보면 'Chinese Personal Names', 'Japanese Personal Names', 'Japanese Place Names'로 구성되어 있다. 'Term Index'에 들어있는 일부 내용이 중첩되어 'Glossaries'에 들어 있는 것이다. 'Glossaries'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Glossary of Proper Names'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Term Index'의 고유명사류가 모두 'Glossaries'에서 중복 서비스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기준에서 중국 인명, 일본 인명, 일본 지명만 'Term Index'와 'Glossaries' 메뉴 모두에 하위 메뉴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동일 하위 메뉴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 목록이 동일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질의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해당 메뉴를 클릭할 경우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즉,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10개 용어(중국 인명)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Indexes'와 'Glossaries' 메뉴의 공통 하위 메뉴
'Chinese Personal Names'에 수록된 용어 목록(일부)

메뉴 위치	Indexes > Term Index > … > Chinese Personal Names	공통	Glossaries > … > Chinese Personal Names	공통
용어	An Tu 安禿	○	A Dafu 阿大夫	×
	Blind Man 瞽叟	×	A Heng 阿衡	×
	Bo Yikao 伯邑考	×	Achiyuejie 阿叱月介	×
	Bodhidharma 達摩	○	Agui 阿桂	×
	bodhisattvas 菩薩	×	Ai ? 艾	×
	Boyi 伯夷	×	Ai Di 哀帝	×
	Cai Shu 蔡叔	○	Ai Gong 哀公	×
	Cao Neng 曹能	×	Ai Jian 艾儉	×
	Chen Li 陳理	○	Ai Jiang 哀姜	×
	Chen Ya Meng 陳壓夢	×	Ai Mu 艾穆	×

주1) '공통'은 'Indexes'와 'Glossaries' 메뉴 밑에 해당 용어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를 다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Glossaries' 밑에 훨씬 많은 용어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ndexes'의 용어 중 'Glossaries'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두 가지 메뉴를 분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번역 과정에서 이 용어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ndexes' 메뉴 밑의 'Term Index'는 'Glossaries' 밑으로 편입시키고 중복되는 메뉴 및 표제항은 통

www.kci.go.kr

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의 분류, 즉 인명(Personal Names), 지명(Place Names), 서명(Book Titles), 연호(Era Names), 용어(Terms)로 분류된 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네 개의 주요 분류 항목(인명, 지명, 서명, 연호)에 속하지 않은 2,800여 개의 용어가 모두 'Terms'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단 번역 측면에서 고유명사의 경우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고유명사를 우선적으로 분류해 목록화하고 일반 명사 등의 용어는 향후 작업을 기약하고 일단 'Terms' 밑으로 일괄적으로 축적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Terms'로 분류된 용어를 차후 다시 작업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류 체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야 혹은 유형 분류가 표제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역 과정에서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사전』이 이미 분야/유형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정의와 용례는 물론 해당 용어가 출현하는 실록과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으므로 동 사전의 분류 체계를 영역 과정에서 생성되는 영문 용어집에 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록 국문 사이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국문 사이트에는 있지만 영문 사이트에는 없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실록 원본 이미지 제공 기능과 본문 색상 비/활성화 기능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록 국역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글자 등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오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록 원본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기능('원본 보기' 버튼)은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영문 사이트에서는 원본 이미지 보기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문 사이트 등 다른 자료를 추가로 참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본문 색상 활성화 기능과 관련해서, 국문 사이트의 '소개 > 구축범례' 메뉴 10번을 보면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색깔"을 조정했다고 되어 있다. 이름은 파란색, 번역주는 보라색, 지명은 녹색, 서명은 갈색 등으로 처리하고 광해군일기의 경우 중초본과 정초본이 차이가 나므로 중초본에 부가 기록한 내용(부기)은 보라색 음영 처리, 중초본에 글자나 문장을 지운 내용

www.kci.go.kr

(산삭)은 하늘색 음영 처리를 하고 있다. 중초본과 정초본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글자에 음영 처리를 한 것은 책자 형태의 실록을 디지털화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이름, 지명, 서명 등은 별색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맥 상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색상 처리한 글씨가 너무 많을 경우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별색 처리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별색 처리된 부분이 원문과 국역문을 비교할 때 일종의 위치적 표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래도 사이트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본문 색상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화면 우측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 영문 사이트도 유사한 체계에 따라 별색 처리를 하고 있으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어져 있지 않다.

국영문 사이트 모두 용어집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데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록 영역 작업의 경우 작업 언어 쌍의 속성 상(한문이 ST, 영어가 TT) 해외에 소재한 학자 혹은 번역자가 작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 국내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영문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경우 대용량 이미지(1263×790 픽셀)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외에서 접속 시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편 시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Indexes'와 'Glossaries' 메뉴를 용어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2.2 용어집

국문 홈페이지의 '용어색인'을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용어집 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문 홈페이지의 '일본지명색인'은 '비전(備前)', '비전주(肥前州)' …… '비주(備州)' 등으로 지명만을 나열하고 각 지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명이 출현하는 기사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대역어(필드명 "Terms")와 함께 설명(필드명 "Explanation")을 제공하고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국문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관련 기사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www.kci.go.kr

〈표 4〉 영문 홈페이지

Terms	Chinese	Korean	Explanation	Another Name
Hizen (Hizen Province)	肥前	비전 (히젠)	Hizen Province, in the Saikaidō circuit; in present-day Saga and Nagasaki prefectures	
Hizen-shū (Hizen Province)	肥前州	비전주 (히젠슈)	See Hizen; another name for Hizen Province	
Bishū (1. Kibi no kuni 2. Bizen, Bitchū, and Bingo provinces)	備州	비주 (비슈)	1. An abbreviation for Kibi no kuni: an ancient polity in western Honshu; 2. A collective term for Bizen, Bitchū, and Bingo provinces	

영문 홈페이지의 용어집 형태는 2012년도에 수행된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 제2차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동 연구 용역 계획서에 따르면 실록에 수록된 천문과학 기사 및 서명(書名)의 영문 번역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와 일본 지명의 영어 표기 및 관련 정보 정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용역 공고의 일본 지명 첨부 자료 작업 예시와 현재 영문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표 4>와 <표 5>의 '비주(비슈)' 참조).

국문 홈페이지의 단순한 색인 형태에 비해 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하는 용어집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효과적인 번역 보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보인다.

〈표 5〉 일본 지명 첨부 자료의 작업 예시[24]

조선왕조실록에 표기된 형태		발음		영문 설명
비전국	肥前國	Hizen no kuni	히젠 (노 쿠니)	Hizen province. An old province of Japan in the area of Saga and Nagasaki prefectures.
비전주	肥前州	Hizenshū	히젠슈	see Hizen no kuni (비전국 肥前國)
비주	備州	Bushū	비슈	1. An abbreviation for Kibi no Kuni, an ancient state in the western Honshu Island. 2. A collective term of Bingo, Bitchū, and Bizen provinces

24) 2012년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사업> 제2차 연구용역 계획

www.kci.go.kr

○숨겨진 용어

먼저 용어가 '숨겨져'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Indexes'의 'Term Index'를 보면 인명(한국, 중국, 일본, 여진/만주, 서양), 지명(한국, 중국, 일본, 여진/만주), 서명, 연호 등 다양한 용어 목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Glossaries'에서는 중국 인명, 일본 인명, 일본 지명만이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메인 검색창에서는 실록 본문(편년기사)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고, 색인(Term Index)이나 용어(Glossaries) 메뉴 밑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색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Index' 밑의 모든 용어를 'Glossaries'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고 메인 검색창에서도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이 검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관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용어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확성

'Term Index > Personal Names > Korean Personal Names'에서 표제어 'Abdicated King'을 보면 'Synonym'으로 'Abdicated King (Taejong)'이라고 되어 있다.『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상왕'은 "이전 왕과 현재의 왕이 동시에 존재해 있을 경우 이전 왕을 일컫는 칭호"로 "조선시대의 상왕(上王)은 태종 때의 태조와 정종, 세종 때의 태종, 세조 때의 단종, 그리고 대한제국기 순종 때의 고종이 존재"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상왕'은 일반명사인데 영문 용어집을 보면 세종 때의 '태종'만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세종실록』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명/고유명사화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용어 추출 및 이를 용어집에 수록 및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6〉 'Term Index 〉 Terms' 세부 내용

Terms	Chinese	Korean	Synonym
abdicate the throne	內禪	내선	
Abdicated King	上王	상왕	Late Abdicated King, [Senior] Abdicated King, Chief Palace Physician
Abdicated King	上王殿	상왕전	Office of the Abdicated King Taejong, His Majesty the Abdicated King

www.kci.go.kr

‘Term Index > Terms’에도 ‘Abdicated King’이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여기에는 ‘Late Abdicated King’, ‘[Senior] Abdicated King’, ‘Chief Palace Physician’이 유의어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용어의 경우 앞서 언급한 ‘상왕’ 개념과는 달라 해당 용어를 실록 영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본 결과 아래 기사 1건만이 검색 결과로 도출되었다.

ST: 典醫判事元鶴死, 賜米豆十石、紙七十卷。
TTE: Chief Palace Physician 典醫判事 Won Hak died 元鶴. [The King] bestowed ten *seok* 石 of rice and soybeans as well as seventy rolls of paper.
TTK: 전의 판사(典醫判事) 원학(元鶴)이 죽었다. 쌀과 콩 10석, 종이 70권을 내려 주었다.
(출처: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8일 경인 4번째 기사)

‘chief palace physician’은 왕실 약재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던 전의감(典醫監)의 관원인 전의 판사임을 알 수 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용어집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복 표제항의 통합

‘Term Index > Terms’에 수록된 전체 용어에 대해 한자 기준으로 엑셀(Excel)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실시한 결과 2,872개 용어 중 700개가 중복되었다고 나왔다. 이는 거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봉례랑(奉禮郞)’과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의 경우는 각기 무려 8번이나 반복 입력되었으며 이 외에도 7번 중복 입력된 용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중복 표제항은 아래와 같이 완전 중복과 부분 중복,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완전 중복
- Acting Director of the Office for Ritual Procedures 攝判通禮 섭판통례
- Acting Director of the Office for Ritual Procedures 攝判通禮 섭판통례

부분 중복
- acting headmaster of the National Confucian Academy 行成均大司成

www.kci.go.kr

행 성균 대사성
- acting headmaster of the Royal Confucian Academy 行成均大司成 행 성균 대사성

완전 중복의 경우 간단히 둘 중 한 표제항만을 삭제하면 되지만 '행 성균 대사성'과 같은 부분 중복의 경우는 어떤 표제항을 대표 표제항[25]으로 할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사례에서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표 표제항만 남기고 다른 표제항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일반 명사의 경우는 대표 표제항을 정한 후 다른 표제항은 유의어 필드에 입력해 두 표제항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복 표제항의 통합은 표제어 '고수(瞽叟)'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Term Index > Personal Names > Chinese Personal Names'에는 'Blind Man'이 표제어로 되어 있고 한문 및 국문 표기가 각기 '瞽叟'와 '고수'로 되어 있다. '소경 고', '늙은이 수'라는 한자 풀이만 보면 'blind man'이라는 번역이 맞으나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명이다. 우리말로는 '맹인' 정도에 해당하는데 사람 이름치고는 기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문 홈페이지에서 "blind man"으로 검색하면 아래 기사 단 한 건만이 결과로 도출된다.

ST: 孤也以古視之, 以堯爲父, 而有丹朱之不肖; 舜亦大聖, 而有瞽叟之頑、商均之愚。然則性之善惡, 雖父子之間, 不相類, 故治人者, 於其身, 不於其親, 況於他人乎?

TTE: I, the Lonely One, refer to the ancient past to show that a depraved son like Danzhu 丹朱 could have [the great sage-ruler] Yao 堯 as a father, and Shun 舜, also a great sage, could have a dolt like the Blind Man 瞽叟 [as a father] and the idiot Shangjun 商均 [as a son].

TTK: 내가 옛 역사에서 이를 본다면, 요(堯)와 같은 어진 이가 아버지인데도 단주(丹朱) 같은 못난 이들이 있으며, 순(舜)도 큰 성인이지만 고수(瞽叟) 같은 모진 아버지와 상균(商均) 같은 어리석은 아들이 있었으니, 성품의 선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닮지 않을

25) 유럽연합의 공공번역 용어뱅크 IATE는『IATE Handbook』에서 대표 표제항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주(2017: 26-30)를 참조하라.

www.kci.go.kr

것입니다. (출처: 세종실록 11권, 세종3년 4월 6일 무술 3번째 기사)

기사를 보면 '고수'는 우나라 순임금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순(舜)'과 '상균(商均)'은 'Shun'과 'Shangjun'으로, 이들이 중국 인물이므로 중국식 발음으로 음역한데 반해 '고수'만 'Blind Man'으로 축자역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소경이었다는 설도 있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어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칭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26] 'Glossaries > Chinese Personal Names'에서도 '瞽叟'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Gu Sou'가 표제어로 되어 있고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구써우'라는 정보와 함께 '수'가 여러 한자어로 표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순임금의 '눈먼 아버지'라는 정보도 설명항에 기재되어 있다. 'Term Index > Personal Names > Chinese Personal Names'에 수록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Glossaries 〉 Chinese Personal Names'에 수록된 '고수' 관련 정보

Term	Chinese	Korean	Explanation	Another Name
Gu Sou	瞽瞍	고수 (구써우)	The blind father of Shun 舜. He remarried soon after Shun's mother died. Although Gu Sou ill-treated Shun in favor of Shun's stepbrother Xiang 象, Shun is said to have always been dutiful to his father and stepmother.	고수(Gu Sou 瞽叟), 고수(Gu Sou 瞽瞍)

다만 "Blind Man"이라는 대문자 표시가 함의하는 바가 빠져 있다. 이 정보는 설명항에 "literally meaning 'Blind Man'" 등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더불어 'Shun'이 누구인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의 설명으로는 순임금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록 기사 본문에서도 '고수'를 "Blind Man"이 아닌 다른 이름들처럼 "Gu Sou"로 번역하는 안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국편위는 축적된 5만 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유

26) 국제퇴계학회 전자자전 표제어 '瞽(소경 고)'의 용례 참조.

http://www.toegye.ne.kr/dic/read_dic.asp?table=board&page=1&m_no=8118&str1=2&str2=%E7%9B%AE-

www.kci.go.kr

명사 영문 표기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김범 2016)으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고의 제언이 반영되기를 바라본다.

○ 분류 적절성

'Term Index' 밑에 들어가 있는 용어 중 'Western Personal Names'를 보면 'Avalokiteśvara 觀音 관음', 'Manjusri 文殊 문수', 'Sakyamuni 釋迦牟尼 석가모니' 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불교 용어로 서양 인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살'을 의미하는 'bodhisattvas' 또한 중국 인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 용어일 뿐 아니라 일반명사이기도 해서 분류의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분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 표제어 지위 부여

'Indexes > Term Index > Book Titles'에서 '명칭가곡'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7건의 결과가 도출된다.

〈표 8〉 '명칭가곡' 검색 결과

Terms	Chinese	Korean	Synonym
Song of the Names	名稱歌曲	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All Buddhas and Bodhisattvas	名稱歌曲	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All Buddhas and Bodhisattvas	諸佛世尊如來菩薩名稱歌曲	제불세존여래보살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名稱歌曲	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Tathagata, Bodhisattvas, and Arhats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Tathagata, Bodhisattvas, and Arhats], Song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Tathagata, Bodhisattvas, and Arhats]
Song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諸佛如來名稱歌曲	제불여래명칭가곡	Song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Tathagata,

www.kci.go.kr

Tathagata, Bodhisattvas, and Arhats			[Bodhisattvas, and Arhats]
Songs of the Names of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名稱歌曲	명칭가곡	

임주탁(2009: 6-7)에 따르면 '명칭가곡(名稱歌曲)'은 중국 명나라의 불곡(佛曲)으로 현세불(現世佛) 또는 부처 화신(化身)의 이름을 나열하는 형식의 가사로 원래 명칭은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이다. 임주탁은 또한 명칭가곡이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태종실록에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이라 기록된 기사(태종 17년 12월 20일)를 예로 들고 있다(p. 14). 이외에도 'Synonym'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표 8>에 나열된 7건 모두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중복 표제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표현(여기서는 'Terms' 필드)이 약간씩 상이한 관계로 모두 별도의 표제항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들 7건을 하나의 표제항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단일 항목으로 통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상태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Song of the Names' 등 영어 표현이 표제어(Terms)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용어집이므로 영어 표현이 표제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재의 체재가 갖추어졌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영문 표현으로 질의어를 입력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이는 해당 표현을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들 영문 표현은 번역된 표현, 즉 대역어로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다. 영역 과정에서의 활용성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실록 원문에 등장하는 용어를 한자나 한글로 검색할 가능성이 많다. 원문이 한문이니 현재의 'Chinese' 필드에 표제어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그래도 영어 홈페이지이니 영문 철자법이 표제어의 지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래『태조실록』영역본의 'Glossary of Terms' 에에서 보듯 해당 용어의 영문 로마자 표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 Chwa kun 左軍 Left Army
> Chwa munhak 左文學 first instructor of the Crown Prince Tutorial Office
> Chwa p'ilsŏn 左弼善 third tutor of the Crown Prince Tutorial Office (p. 910)

www.kci.go.kr

이 방식이 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매큔-라이샤워 표기법과 국립국어원 표기법으로 모두 검색 가능해야 하므로 각 용어에 대해 이 두 가지 표기법을 모두 수록함에 따른 추가 작업의 비용을 생각하면 현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자나 한글 표기를 표제어화하고 한글 혹은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명칭가곡'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약칭이기는 하나 '명칭가곡'을 대표 표제어로 하여 이 대안에 따라 통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중복 표제항 통합 사례 - 명칭가곡[27]

Term	Synonym	English Translation
名稱歌曲 (명칭가곡)	諸佛世尊如來菩薩名稱歌曲 (제불세존여래보살명칭가곡);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 諸佛如來名稱歌曲 (제불여래명칭가곡)	*Songs of the Names (of All Buddhas and Bodhisattvas)*; Lit. *Songs of the Names of the World-honored Tathagata, Bodhisattvas, and Arhats*

27) 이 표는 아래와 같은 범례를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이다.
- ○ Term: SL 용어를 한자 표기(한글 표기)순으로 병기한다.
- ○ Synonym: SL 용어의 이칭(異稱)을 입력하되 각각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 ○ English Translation: 영문 대역어를 입력하되 다음 원칙에 따른다.
  - 표준화된 표현 내지 대표적인 표현을 맨 앞에 위치시킨다.
  - 일반적으로 축약하여 쓰는 경우 내지 축약이 가능한 경우 생략되는 부분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 고유명사처럼 축자역을 제공하는 경우 'literally translated'를 의미하는 'Lit.'를 앞에 붙인다.
  - 서명, 작품명 등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상기 범례는 중복 표제항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번역 작업 시, 특히 기관 차원에서 대규모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세부 지침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필요에 따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www.kci.go.kr

4. 나가며

『조선왕조실록』 번역은 언어내/언어간 번역, 재번역, 제도번역, 공동번역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번역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록 번역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한국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번역학적 관점에서 실록 번역 사업을 고찰해 보고 이들 번역 사업에서 산출된 직간접적 번역 결과물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실록 번역, 특히 영역 과정에서 번역가가 참조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자료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러한 제언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록 관련 번역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번역청 등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유관 기관 간 적극적 협업이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이기찬(2014: 239)에 따르면 이미 실록 번역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제안 사항이 머지않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본 연구는 개인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혹은 파악하지 못한 유용한 번역 보조 자료가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망을 통해 실록 번역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및 목록화하는 한편으로 번역자가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꼬르디에(Henri Cordier)가 영국에서 출판된 중국 고전 번역서를 정리해 『중국 서지』(*Bibliotheca Sinica*)에 정리한 것처럼 체계적인 한국학 공구서 목록까지 작성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안이 될 것이다.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록 영역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제언을 번역 보조 자료라는 측면에서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적 인프라 측면의 고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정문 외(2011)에 따르면 위촉 번역 방식은 번역문의 일관성 유지에 방해 요소로 작용해 번역 품질을 저해한다. 현재 위촉 번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록 영역 사업도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부적으로 전담 번역 인력을 배치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송혁기 외 2012 참고) 동일 번역자가

www.kci.go.kr

지속적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일관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사업이니만큼 유능한 신규 번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범(2016)은 실록 영역 사업의 경우 영어, 한문, 한국사에 있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국 고전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에 고전번역학 협동과정이 개설됐다. 저변 확대를 위해 동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연히도 2017년도 입학한 국내 박사 신입생 두 명 모두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에서 한영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통역번역대학원이 학점 교류, 공동 학위 수여 제도 등을 통해 각자의 연구 및 교육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국학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리조실록』에 대해 간략히 언급만 하고 북한 자료라는 특수성과 저작권 문제 등의 이유로 구체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실록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리조실록』을 포함해 다양한 판본을 상호 보완해 가며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리조실록』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실록 국역 사이트에서는 현재 중국의 명·청실록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는 2014년 대만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와 '조선왕조실록·명실록·청실록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8]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과 학술 교류를 통해『리조실록』도 온라인으로 제공해 번역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제안에 따라 구축 및 개선된 자료는 당장의 번역 작업 뿐만 아니라 인적 인프라 양성, 즉 교육 과정에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고품질의 결과물 산출을 위해 보조 자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키는 외에도,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 예비 번역가가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28) http://sillok.history.go.kr/mc/intro/notes.do

www.kci.go.kr

개선안을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번역 작업에 참여하는 전문 번역가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촉박한 마감 기한 등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번역가가 관련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록 번역은 거의 모든 형태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드문 사례인 만큼 향후 여러 번역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다른 문화권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제도번역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짐(강지혜 2017: 10)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도번역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태조실록』이 모범적인 번역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실록 영역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을지 번역 전략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고를 계기로 실록을 비롯한 한국학 고전에 대한 번역학계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강지혜 (2017)「근대계몽기 제도번역을 통한 서양의학 지식 생산과 확산: 제중원의 의학교재 번역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18(3): 7-35.

김범 (2016)「조선왕조실록의 영역과 국제화」. 제8회 세계한국학대회(The 8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발표문 (https://congress.aks.ac.kr:52525/korean/files/2_1478845969.pdf, 2017년 9월 11일 검색).

김범 (2017)「전통의 진화, '세종실록'의 영역(英譯)과 간행」, 한국국정일보 (2017/4/5, http://www.kukjung21.co.kr/mobile/article.html?no=48139, 2017년 9월 11일 검색).

김영두 (2016)「조선왕조실록의 정보화와 그 영향」. 제8회 세계한국학대회(The 8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발표문(https://congress.aks.ac.kr/korean/files/2_1478845996.pdf, 2017년 9월 11일 검색).

김정우 (2009)「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번역학연구』10(1): 33-63.

박현주 (2017)「공공번역용 용어뱅크 구축을 위한 제언 – 국립국어원과 IATE

www.kci.go.kr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통역과 번역』19(3): 1-36.
사회과학출판사 (1977)『리조실록 14 (세종 1)』.
서정문, 정만조, 신승운, 김인걸, 조성덕, 이형유, 한문희 (2011)「국역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I)」, 한국고전번역원 연구보고서.
송혁기, 이동철, 이상하, 김근호, 김선업, 양원석 (2012)「한문고전 번역 인력 양성 방안 연구: 한문고전번역인재 수급현황 및 전망중심」, 한국고전번역원 연구보고서.
신정수 (2016)「직역의 가능성과 윤리:『연산군일기』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고등연구소 인문정신문화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프로시딩『한문 고전의 영어번역: 현황과 과제』127-138.
에드워드 슐츠 (2008)「고려의 사료: 고려엔 고려청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조동일 외,『한국학 고전자료의 해외 번역: 현황과 과제』,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210.
원창애 외 (2013)「『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편찬사업」,『한국학 사전 편찬의 현황』, 서울: 지식과 교양, 87-118.
유명우 (2004)「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번역학연구』5(2): 69-91.
유정화 (2014)「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번역학연구』15(3): 125-151.
윤재민, 이동철, 송혁기, 전병욱, 김정숙, 백진우 (2008)「한문고전 정리·번역 시스템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연구보고서.
윤재민, 이동철, 송혁기, 전병욱, 김정숙, 백진우 (2009)「한문고전 정리·번역 시스템 연구」,『민족문화』33: 237-276.
이기찬 (2014)「조선왕조실록 재번역 과정에서의 제문제 －정조실록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고전번역연구』5: 205-243.
이영훈 (2011)「한국에서의 번역 개념의 역사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飜譯'」,『통번역학연구』15(1): 129-151.
이영훈 (2012)「한국어 번역 개념사의 명칭론적 접근 －조선왕조실록 탐구 (2)」,『번역학연구』13(1): 167-203.
임주탁 (2009)「명칭가곡 수용의 양상과 의미」,『한국문학논총』51: 5-50.

www.kci.go.kr

전현주 (2017) 「『목민심서』의 영역본(英譯本)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소고(小考): 한국학의 메타텍스트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15(1): 233-254.

정영미 (2016) 「남·북한 조선왕조실록 번역 비교」, 『민족문화』 48: 299-342.

정우봉 (1999) 「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대중성」, 『정신문화연구』 22(2): 5-30.

최영호 (2008) 「조선시대 자료의 영문 번역 현황과 장래의 과제」, 조동일 외, 『한국학 고전자료의 해외 번역: 현황과 과제』,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11-226.

Gouadec, Daniel (2007) *Translation as a Profess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Kim, Nam Hui (2012) 「통역의 역사 개관 II: 조선전기」, 『통번역학연구』 16(4): 25-53.

Kim, Nam Hui (2014) 「통역의 역사 개관 III: 조선 후기」, 『통번역학연구』 18(1): 1-39.

Wert, Michael (2015) '[Review of]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on Dynasty', *Choice* 52(5): 87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국역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영역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esillok.history.go.kr/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www.kci.go.kr

[Abstract]

Joseon Wangjo Sillok Translation Projects: What their accomplishments are and how they can be better used

Park, Hyun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s a chronological record of kings' historical reigns of the Korean dynasty. Originally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the *Sillok* has been or is being translated into Korean and English under various initiatives. Although its translation projects have brought in almost all types of translation forms (e.g. intralingual, interlingual, institutional, collaborative, retranslation), little interest has been paid to them in the context of Translation Studies.

Largely led by state agencies, the projects have produced a range of tangible accomplishments -- the translations of the extensive text as well as "byproducts" including the web services of the translated versions, terminological dictionaries dedicated to the *Sillok* and a 260-page translation style guide. As the accomplishments can serve as useful resources for future translation --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Sillok* was initially planned for completion in 2033 and could be extended beyond that --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m and explores ways to enhance their usability as translation aids for the ongoing projects.

▸ Key Words: *Joseon Wangjo Sillok*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tate-led translation projects, translation (by)products, translation aids/resources
▸ 주제어: 조선왕조실록, 정부 주도 번역 사업, 번역 결과물/부산물, 번역 보조/참고 자료

www.kci.go.kr

박현주
부산대학교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 번역, 번역 보조 도구, 전문용어사전, 코퍼스번역학

논문투고일: 2018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

www.kci.go.kr